DB 5연승 선두 질주에도 덤덤한 이상범 감독…왜?

"언젠가 다가올 위기…대비책 구상"

이상범 감독

원주 DB는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 이후 5연승으로 선두에 올랐지만 이상범 감독(50)은 덤덤했다. 현재보다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준비에 더 몰두하고 있다. 이 감독은 22일 "기분 좋은 연승 행진이다. 선수들이 예상보다 잘해준 덕분이다. 시즌 초반 목표는 5할이었는데 선수들의 호흡이 생각보다 괜찮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감독이 그렇듯 나도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패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큰 고비도 올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비책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경기 도중 김태술의 작전지시'에 대해서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이 감독은 "DB에 부임한 이후 첫 시즌에 수비는 윤호영, 공격은 김주성에게 많이 맡겼다. 지난 시즌에도 윤호영이 선수들과 대화하며 팀을 끌어갔다"며 "매 시즌 같은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감독이 다 할 수 없다. 경기는 선수들이 하고, 결과도 그들의 손에 달렸다.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믿고 맡긴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감독은 빡빡한 이번 주 일정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고양 오리온(홈), 25일 울산 현대모비스(홈), 27일 인천 전자랜드(원정)와 만난다. 상대도 강하고, 일정도 만만치 않다. 그는 "한 차례 비슷한 스케줄을 소화했는데 선수들이 잘 버텼다. 이번에도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다.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선수들을 믿고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삼성생명 김한별, 개막전 트리플더블급 활약

올어라운드 플레이어 김한별의 '가드 부심'

우리은행전 어시스트 7개나 기록
"미국서 뛸 때 주로 포인트가드 봐 그래도 어시스트는 동료들 덕분"

농구에서 트리플더블은 득점·리바운드·어시스트·스틸·블록슛 등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두 자릿수의 기록을 남길 경우 성립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다. 다방면에 걸친 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리플더블은 올어라운드 플레이어들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여자프로농구(WKBL) 용인 삼성생명의 베테랑 김한별(34)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21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과의 시즌 첫 경기에서 12점·13리바운드·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68-62)에 힘을 보탰다. 트리플더블에 어시스트 3개 모자란 기록이다.

김한별은 2009~2010시즌 WKBL에 데뷔할 때부터 득점과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강점을 잘 드러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어시스트다. 들쭉날쭉했던 어시스트 기록이 2015~2016시즌(평균1.55개)을 기점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6~2017시즌은 평균 2.25개, 2017~2018시즌에는 평균 2.77개를 기록하더니 지난 시즌(2018~2019)에는 3.66개까지 증가했다. 어느덧 30대 중반의 베테랑이 되면서 잔부상이 많아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있지만 관록이 생기면서 플레이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김한별은 "경험이 쌓인 것도 있지만, 포인트가드는 내게 낯선 포지션이 아니다. 한국에 와서는 득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포인트가드를 봤다. 미국에서는 나보다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내 포지션은 가드였다. 2~3년 전부터는 우리 팀에서도 가드를 맡으면서 어시스트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어시스트는 마냥 패스만 잘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받아서 득점하는 동료들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김한별은 "내가 어시스트가 늘어난 것은 동료들의 역할이 크다. (이)주연이, (양)인영이 등 후배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패스를 할 수 있다. 꾸준히 함께 경기를 뛰다보니 호흡이 잘 맞는다"며 팀 동료들에 대한 굳은 신뢰를 드러냈다.

김한별은 지난 시즌인 1월 23일 부천 KEB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는 11점·13리바운드·10스틸로 데뷔 10년 만에 첫 트리플더블을 기록한 바 있다. 올 시즌에는 첫 경기부터 트리플더블에 근접한 기록을 남겨 또 한 번의 기록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한별은 "기록을 꼭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내 몸 상태가 좋으면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미소를 지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용인 삼성생명 김한별은 다재다능한 포워드다. 팀 사정상 주로 포워드 역할을 맡지만 미국대학농구에서 활약하던 시절 가드로 뛴 경험이 있어 어시스트 능력도 좋다. 21일 우리은행전에서도 어시스트를 7개를 기록했다. 3개만 더 했다면 트리플더블도 가능했다. 사진제공 | WKBL

4연승 후 2연패 전자랜드…유도훈 감독 "리스타트"

할로웨이 부상 경미·김낙현 합류
"초반 벌어놓은 승수 좀 까먹은 것"

인천 전자랜드는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개막 4연승을 달렸으나, 이후 2연패에 빠지면서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연승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시련이 다가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19일 전주 KCC와의 경기(86-90패)를 앞두고 시즌 초반 '올스타급' 활약을 펼쳐온 김낙현(24)이 갑작스레 부친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다. KCC전 패배 직후에는 서울 SK에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94-100으로 패했다. 선수들은 부친을 하늘로 떠나보낸 김낙현을 위해 승리한다는 각오로 온힘을 짜냈으나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유도훈 감독

여기에 SK와의 경기 도중 센터 머피 할로웨이(30)가 발목 부상까지 당했다. 병원 검진 결과 부상 상태가 심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당장 27일 예정된 원주 DB와의 홈경기 출장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당 16.7점·9.7리바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할로웨이가 빠질 경우, 팀 전력에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자랜드는 SK전 직후 선수단 전체가 전남 여수로 내려가 김낙현 부친의 빈소에 다녀왔다. 김낙현은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22일 팀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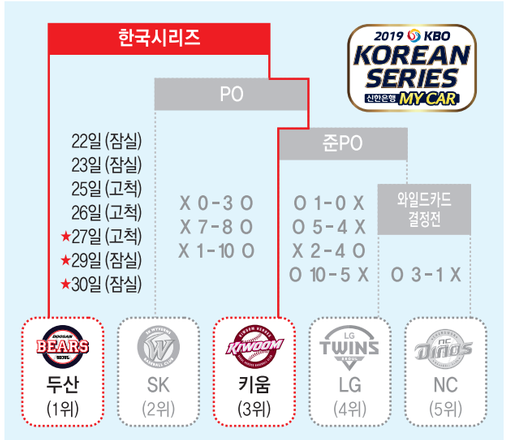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53)은 "(김)낙현이가 갑작스러운 부친의 비보에 놀랐을 텐데 마음을 잘 추스르고 있더라. 선수단 전체가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 연패를 당했지만, 초반에 벌어놓은 승수를 좀 까먹은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머피(할로웨이)는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시 한 단계씩 밟아나간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정지욱 기자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21일〉



※ 경기시간 : 주중 18시 30분, 주말 · 공휴일 14시. ※ ★표는 필요시 경기

•역대 한국시리즈 승패

연도	승리팀	전적	패배팀
2006	삼성 (4승1무1패)	OXOOOO	한화 (1승1무4패)
2007	SK (4승2패)	XXOOOO	두산 (2승4패)
2008	SK (4승1패)	XOOOO	두산 (1승4패)
2009	KIA (4승3패)	OOXXOXO	SK (3승4패)
2010	SK (4승)	OOOO	삼성 (4패)
2011	삼성 (4승1패)	OOXOO	SK (1승4패)
2012	삼성 (4승2패)	OOXXOO	SK (2승4패)
2013	삼성 (4승3패)	XXOXOOO	두산 (3승4패)
2014	삼성 (4승2패)	XOOXOO	넥센 (2승4패)
2015	두산 (4승1패)	XOOOO	삼성 (1승4패)
2016	두산 (4승)	OOOO	NC (4패)
2017	KIA (4승1패)	XOOOO	두산 (1승4패)
2018	SK (4승2패)	OXOXOO	두산 (2승4패)

메이저리그 〈22일〉

※ 한국시간 ※ ★표는 필요시 경기

아마추어 경기결과 〈22일〉

테니스 ●제 63회 장호홍종문배 전국 주니어 테니스대회(서울특별시)

•남자 단식 1회전=김근준(양구고) 2-0 강건욱(서초중), 조선웅(현일고) 2-1 곽호민(전곡고), 윤현덕(양구고) 2-0 강완석(안동고), 심우혁(양구고) 2-1 이준현(서울고), 송승하(동래고) 2-0 김민준(양구중), 장태하(삼일공고) 2-0 이해선(양구중), 추석현(양구고) 2-0 박정원(M스포츠), 김동주(마포고) 2-0 박용준(전곡고)

•여자 단식 1회전=백다연(중앙여고) 2-0 김민서(오산중), 류하영(안동여고) 2-0 김은채(중앙여고), 이은지(중앙여고) 2-0 김서영(안동여고), 신혜서(중앙여고) 2-0 한형주(수원여고), 오은지(중앙여고) 2-0 김희경(안동여고), 문정(중앙여고) 2-0 김은서(오산고), 권지민(중앙여고) 2-0 오유경(원주여고), 위휘원(중앙여고) 2-1 조시형(강릉정보)

해외축구 〈22일〉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리버풀	9	25	8	0	1
2	맨체스터시티	9	19	6	2	1
3	레스터시티	9	17	5	2	2
4	첼시	9	17	5	2	2
5	아스널	9	15	4	2	3
6	크리스탈팰리스	9	14	4	3	2
7	토트넘	9	12	3	3	3
8	번리	9	12	3	3	3
9	셰필드Utd.	9	12	3	3	3
10	본머스	9	12	3	3	3
11	웨스트햄	9	12	3	3	3
12	애스턴빌라	9	11	3	4	2
13	울버햄튼	9	11	2	2	5
14	맨체스터Utd.	9	10	2	3	4
15	에버턴	9	10	3	5	1
16	브라이튼	9	9	2	4	3
17	사우스햄튼	9	8	2	5	2
18	뉴캐슬	9	8	2	5	2
19	노리치시티	9	7	2	6	1
20	왓포드	9	4	0	5	4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아게로	맨체스터시티	8
①	아브라함	첼시	8
③	아우바메양	아스널	7
④	바디	레스터시티	6
④	스털링	맨체스터시티	6
④	푸키	노리치시티	6
⑦	마네	리버풀	5
⑦	윌슨	본머스	5
⑦	케인	토트넘	5
⑩	레쉬포드	맨체스터Utd.	4
⑩	마운트	첼시	4
⑩	반스	번리	4
⑩	베르나르두	맨체스터시티	4
⑩	살라	리버풀	4
⑩	우드	번리	4
⑩	웨슬리	애스턴빌라	4
⑩	잉스	사우스햄튼	4
⑩	헬러	웨스트햄	4
⑲	맥긴	애스턴빌라	3
⑲	모페	브라이튼	3

•경기결과

셰필드Utd. 1 - 0 아스널

경기 예고

프로야구 〈23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S 2차전〉

키움 (-) 〈잠실〉 두산 (-)

오후6시30분, SBS TV

남자프로농구 〈23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DB 〈원주종합〉 오리온

오후7시, SPOTV2

여자프로농구 〈23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BNK 썸 〈BNK센터〉 KB스타즈

오후7시30분, IB스포츠

프로배구 〈23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 〈수원체육관〉 우리카드

오후7시, KBSN스포츠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인삼공사 〈대전충무〉 현대건설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3일〉

축구 ●2019 내셔널리그

•경주-창원(경주시민, 오후3시), 강릉-부산(강릉종합), 목포-대전(목포축구, 이상 오후7시), 김해-천안(김해운동장, 오후7시30분)

테니스 ●제 63회 장호홍종문배 전국 주니어 테니스대회(서울특별시)

배드민턴 ●2019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프랑스 파리) ●2019 인도네시아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인도네시아 마젤란)

골프 ●2019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10차전(군산, 오전7시20분)

오늘의 토토 〈23일〉

•배구토토 스페셜 37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0.23 (수) 19:00	한국전력 vs 우리카드	수원실내체육관
2	10.23 (수) 19:00	KGC vs 현대건설	대전충무체육관